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1.16 (통권231호)

경제 이슈

- 미국 금융 불안 재발 가능성
- 국내 수출입 물가 하락세 지속

경영 노트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

사회 트렌드

- 리본(Re Born)족
- 차이메리카(Chimerica)

차이나 리포트

- 중국의 산업 진흥 계획과 시사점

저널 브리프

- 경영 다이어트, 이렇게 시작하라

洗心錄

- CANCER로 지은 6행시

□ 미국 금융 불안 재발 가능성

- 美 상원이 2차분 금융구제 자금의 집행을 승인하고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8,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금융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됨
 - 2차 금융구제 : 1차분 집행 시 부실한 사후 감시 등으로 부결 위험이 있었으나 2차분 3,500억 달러 자금 중 1,000억 달러를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가계를 위해 사용 약속 등으로 상원의 동의를 얻음
 - 민주당 경기부양법안 :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8,250억 달러의 경기부양법안을 제안하여 기존의 7,750억 달러보다 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 보임
 - 금융권 실적 발표 :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실적이 4분기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고조
-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인수한 메릴린치의 2008년 4분기 손실은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여 불안 심리 가중

□ 국내 수출입 물가 하락세 지속

- 한국은행(1월 16일)에 수출입물가(원화기준)는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동반 하락
 - 수출물가 : 2008년 12월 수출물가는 세계 경기 동반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금속제품 등이 내리면서 전월대비 4.4% 하락
 - 수입물가 : 12월 수입물가는 엔화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자본재가 올랐으나 국제유가의 하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가 내려 전월대비 5.7% 하락
 - 부문별 수출입물가 : 12월 수출물가는 농림수산물(-8.0%)과 공산품(-4.4%)의 하락폭이 컸고 수입물가는 원자재가 -11.7% 내려 중간재 및 소비재보다 하락폭이 컸음
- 한편, 2008년 수출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이 21.8% 상승, 수입은 36.2% 상승하여 수입물가의 증가폭이 14.4%p 상승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

- 실패를 엄하게 처벌하는 조직일수록 위기 극복의 대처 역량이 부족
 - 조직원들이 실패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임
 -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전장에서 실패한 장수에게 가혹한 책임보다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훗날 제국 건설에 밑거름이 되었음

< 로마제국을 통해서 살펴본 교훈 >

	내 용
B.C 216년	로마제국이 카르타고군의 ‘한니발’ 장군에게 유례없는 큰 패배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패전한 장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워 훗날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함
B.C 255년	1차 ‘포에니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군은 귀로길에 폭풍을 만나 6만여 명의 병사를 잃지만, 그들에게 책임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주어 이듬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함

■ 세계적인 리더들의 ‘실패’ 에 대한 시각

리더	내 용
나폴레옹	“영웅에겐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 : 실패란 그만큼 대가를 치른 교훈임 즉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조직이 공유함으로써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면 그 실패는 값진 것임
빌 게이츠	“실패한 기업에 몸담은 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한다.” : 실패할 때는 창조성이 자극되기 마련이라며, 밤낮없이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인재들을 주위에 두고 싶다고 주장함

자료: <이코노미스트>(2009.1.20)

- 합리적인 리더와 그의 조직이라면 조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선장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 정신과 기업문화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함

□ 리본(Re Born)족*

- ‘리본족’이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고 매력적인 재혼 희망 남성을 말함
 - 이혼 후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경제력과 여성에 대한 매너 등을 갖춰 상대방에게 ‘리본을 묶은 선물’ 같다는 뜻도 내포
- ‘결혼은 선택’이라는 의식이 보편화되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잣대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을 우선시함
 - 이에 따라 이혼에 대한 편견이 없고 결혼에 대한 사고가 자유로운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리본족’이 매력적인 결혼상대자로 떠오르고 있음
 - 초혼 때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인데다 실패를 바탕으로 결혼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 덕분임
 - 특히 골드미스의 경우 빨리 결혼한 주변 친구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재혼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차이메리카(Chimerica)

- 미국과 중국의 상호 중독 상태를 하버드대 경제사학 교수 니알 퍼거슨은 ‘차이메리카’로 명명함
 - 퍼거슨 교수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3%, 인구의 4분의 1,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양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다고 말함
 - 중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아 번 돈을 다시 미국에 빌려주는 채권국이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면 중국 자신도 디플레이션을 겪게 돼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다고 지적함
- 퍼거슨 교수는 차이메리카 시대마저 가까운 장래에 끝나고, 중국이 2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중국의 지배 하에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가 온다는 것임

* “골드미스 리본족에 빠지다”(헤럴드경제, 2009.1.13) 기사 참조

□ 중국의 산업 진흥 계획과 시사점

■ (개요) 1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철강과 자동차 산업 진흥 계획을 우선 발표하고, 추후 진흥 계획을 8대 주요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함

-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기타 산업과의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타 산업에 우선하여 진흥 계획을 마련
- 철강과 자동차 산업 진흥 계획의 제정 목표는 양대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 추후 진흥 계획 발표가 예상되는 산업으로는 조선, 석유화학, 방직, 유색금속, 장비제조 및 전자통신 산업임

■ (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 중국 국무원은 적극적인 소비정책을 통해 자동차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실시와 전기 자동차의 개발을 지원

- 자동차 소비시장 육성 : 2009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기량이 1.6L 이하인 승용차에 대한 차량 등록세를 5%로 인하
 - 200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는 농촌지역 주민의 경차와 소형 트럭, 소형 승합차 구입에 50억 위안(1조 원)의 재정을 지원
-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실시 : 대형 자동차 기업 집단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과 주요 자동차 부품 업체 위주의 인수합병을 지원
- 자동차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2011년까지 정부는 100억 위안의 전용 자금을 책정하여 기술개발과 부품업체의 제품 개발을 지원
-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 :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과 부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중대형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한 보급을 지원

- 자동차 유통 활성화 지원 : 국산 자동차의 브랜드 제고와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자동차 할부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
- (철강 산업 발전 정책) 철강 산업에 대한 총량 통제와 후진 기업에 대한 퇴출을 종용함으로써 무모한 대규모화를 지양하고 질적 경쟁력을 향상
 -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 : 철강에 대한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철강제품의 수출 세제를 개편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
 - 철강 생산의 총량 통제 : 기술적으로 낙후하고 규모가 작은 후진 업체를 과감히 퇴출시킴으로써 공급 총량에 대한 관리 실시
 - 철강 산업 구조조정 추진 : 대형 철강업체 중심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철강 산업의 집중도를 높임
 - 철강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철강 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고부가화와 다양화를 도모
 - 철강 시장 정비 : 철광석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국내 철강 판매 시장에 대한 정비를 통해 수급불안에 따른 위험 분담을 유도
- (시사점) 중국의 8대 산업 진흥 계획은 한국 기업들에게 위협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기도 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 국내 부품 소재 업체들은 대중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직접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중국 업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할 것임
 - 전반적인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파격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경영 다이어트, 이렇게 시작하라*

■ 불황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성 극대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증가

- 과거 생산과 제조 부문에 국한됐던 낭비 제거 활동이 최근에는 연구개발, 영업, 물류, 인사, 재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조 원가를 고려해 값 싼 소재를 사용토록 한다거나 낭비 에너지를 수거해 난방으로 재활용하는 활동들임

■ 경영 다이어트의 실천 방안

-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효과적인 린(lean) 생산방식을 위한 7가지 성공 요소'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다이어트 경영 비법을 소개

< 성공적인 다이어트 경영을 위한 7가지 제언 >

요 소	내 용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어려움
크게 사고하되 작게 시작하라	-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 횟수를 늘려 자신감 형성
전 직원을 참여시켜라	- 전 임직원을 간접적으로라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성공 체험을 공유하여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향상
자사의 문화에 맞는 낭비제거 방식을 찾아라	- 개별 부서 매니저들이 다이어트 경영의 목표와 평가지표를 부서 스타일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
경험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 다이어트 경영의 원칙과 방식을 이해하고 팀 동료들과 전면에 나서 일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이용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라	-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 회사 의지를 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 필수

자료: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

■ 효율적인 경영 다이어트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다만, 자칫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조건적인 원가절감요구를 자제하고, 기업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경영 다이어트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이 글은 『한국경제』 (2009.1.14)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CANCER로 지은 6행시

암스트롱. 자전거 대회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에서 사상 최초로 7연패를 한 선수. 그러나 그는 치사율이 높은 고환암을 극복한 인간승리의 상징으로 더 유명하다. 그는 자서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땐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고통과 평생 함께 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것과 함께 살고 싶은지”라고 썼다. 그가 CANCER(암)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지은 6행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했다.

C : Courage (용기)

A : Attitude (태도)

N : Never give up (절대 포기 하지 않기)

C : Curability (치료 가능)

E : Enlightenment (깨달음)

R : Remembrance of my fellow patients (동료환자 기억하기)

암스트롱은 장래가 밝았던 젊은 프로사이클 선수였던 그에게 찾아왔던 생존율 45%의 암을 이겨냈다. 투병 후,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고 1999년 첫 번째 투르 드 프랑스대회에서 우승한다. 우승까지 엄청난 체력 소모와 의지가 필요한 훈련을 이겨냈다는 것이다. 그가 지은 6행시 중 ‘절대 포기 하지 않기’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꾸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역경을 이겨낸 암스트롱과 같은 훌륭한 본보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해 준다.”

- 조스린 (1870~1962) : 미국의 당뇨병 전문의